

테마칼럼

광안과 임상

문화의 양기

디자인 세상

파라라 평방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



이난경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인가. 요즘 같은 경제위기야말로 창의력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태평양을 건너 급기야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자를 몰살시킬까 하고 있다는 소식이야. 10년 전의 외환위기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고 아우성이라는 뉴스를 접하니 내일부터 영하의 겨울날씨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보다 더 가슴을 시리게 한다.

비전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낀다. 지난 24일 모 그룹이 개최하는 컨퍼런스의 기자간담회에서 라시드는 "경제 위기는 그간 풀릴보다 브랜드에만 집착해온 행태에 대한 반성의 기회" 라면서 "브랜드에만 기대서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제품을 내놓지 않는 회사들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 이라고 말했다.

원 스테디 셀러인 1만원대의 '가르비노 스트레기통' 을 꼽는다. 그것은 그의 디자인 철학인 '디자인노크라시 (designocracy : 디자인 민주주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의 철학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이 합리적인 가격에 실용적인 디자인 제품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수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민인을 위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임흥철



의료계도 불황의 뒤편을 맞고 있는 요즘, 우울한 소식에만 채워지던 신문지면에서 뜻밖에도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개원 30주년을 맞은 조순대 치과병원이 의료기술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내용이였다. 지난 2003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진료를 해온 필자로서는 눈을 떴기 힘든 기사였다.

면 중국이 한 수 위인 것 같다. 중국 정부는 외국 의사에 대해 1년간 한시적인 의사면허를 주는데, 이 때는 파트타임 중국 측 병원의 서무(경제적인 투자 또는 학술 교류 증명 등)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도 또다시 면허를 연장할 수도 있다.

중국 진출을 꿈꾸는 의료인들에게

는 중국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개원의들을 종종 보았다. 개원과 투자, 학술교류 등 중국 진출에 목적을 다룰 수 있으나 가장 먼저 중국의 기본적인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중국의 의료법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투자가 아닌 학술 교류의 목적으로 중국에 초빙돼 진료를 할 경우에는 형사상의 문제를 본인에게 야자한다.

서는 중국의 외국 자본에 대한 기본 법률도 익혀야 한다. 중국에서는 외국 자본이 할 수 있는 산업은 '우대산업', '제한산업', '금지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대산업은 중국에 없는 최신 기술을 가진 업종으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제한산업은 외국인이 모든 자본을 가질 수 없고 반드시 중국 내국인들과 합작을 해야만 하는 경우로 병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석유와 같은 에너지 사업은 금지산업으로 분류돼 외국인은 투자할 수 없다.

대학병원 일반·선택 진료 분리 위화감 조성

직장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요잠혈(혈뇨)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의사가 정밀진단을 받게 좋을 듯하다고 알려줘 다음날 대학병원에 갔더니 접수담당자가 일반진료와 특진이 있으니 선택하라고 했다.

를 반복하는 동안 상당한 돈을 써야만 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특진료로 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실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의는 선택할 시간도 많지 않고, 병원 담당자들은 특진이 아닌 경우 실력없는 의사가 광범위하게 보기 때문에 진료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투로 말한다.

기고

이진영



광주·전남지역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영산강 뱃길 복원 문제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그 가운데 인상 깊은 것은 지난 9월 영산강 뱃길 복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대대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일이다.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영산강 중심에 위치하면서 나주 평야와 더불어 수많은 애환을 공유해온 재광나주항우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고향에 대한 도리도 아니요, 광주·전남의 발전을 외면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영산강 물길 터야 남도가 산다

영산강 하구둑 설치로 오랜 세월동안 강바닥에 쌓인 토사와 오물 등으로 인해 지금의 물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5급수를 넘어 6급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이면 시궁창 같은 악취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남도에서는 강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과 뱃길 복원 사업은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과 하천의 특징,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후도시 계획과 관광레저산업, 역사성과 문화재의 보존방법은 물론 최종적으로 경제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한 것으로 안다. 또한 뱃길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고 면밀한 기록과 현장조사 그리고 정밀한 예측과 세밀한 기술 검토를 병행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국민 57% 기업에 부정적...정직·투명 경영 노력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반기업' 정서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응답이 57.0%로 '긍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응답률 26.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물론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기업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 기업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경유착, 부식적계,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겠다는 기업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無等鼓

이번 주 프로골퍼 신지애(20·하이마트)가 받은 스포트라이트는 매우 화려했다. 신지애는 지난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DT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2연타로 20-21우승을 거두며, 세계 '지존'으로의 등극을 예고했다.

지존의 선물

신지애가 우승하자 국내 유명신문은 상금 100만달러(15억 원)를 안고 있는 그의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외신들도 일제히 "새로운 여제(女帝)가 나타났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시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헛구호였나

국토해양부가 광주·전남 최대 현안의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해 오송~광주 구간은 2015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헛구호에 그쳐 유감스럽다.

2012년, 광주~목포는 2015년 마무리하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남도가 요구해온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호남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을 뿐,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은 없다.

최저치 기록한 광주 제조업체 경기전망

광주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여 어두운 지역경제의 실상을 드러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150개 회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BSI(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100을 기준으로 '호황' 여부를 판단하는데 60을 기록,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성장을 마이너스에서 경기 하강속도가 지금보다 가파를 수밖에 없다. 미국발 경제위기의 쇼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준 것 같지만 그 파장과 후유증이 앞으로 본격화되는 것이다. 생산활동 위축과 가계소득 감소,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